

2024. 3. 4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

김경미

2133-5360

소비자권익보호
팀장

박상진

2133-5374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서울시,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% 지원... 지원품목 11개로 확대

- 휴대폰 케이스 등 신체접촉빈도 높은 제품 및 안전기준 없는 어린이제품 추가해 9개→11개
- 항목당 최대 125만 원에 이르는 검사비, '16년 시작해 지난 8년간 2,916건 지원
- 품목에 따라 최대 100%,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검사비 지원
- 시, “생활 밀접제품들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할 것”

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. 특히 올해부터는 슬리퍼·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기존 9개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. 첫 신청일은 3월 4일(월)부터다.

안전성 검사란 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’과 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’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,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.

-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는 4가지로 구분되며, 반드시 인증·시험을 받아야 하는 ①안전인증, ②안전확인, 판매자가 스스로 검사·안전표시 하는 ③공급자적합성 품목, 사전인증·시험 의무가 없는 ④안전기준준수 품목이 있다.
- 안전성 검사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,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, 이에 따른 검사 비용은 최대 125만 원(어린이용 가구 검사 중 1개 항목)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.
- 이에 시는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현재는 품목에 따라 80~100% 지원하고 있다. 지난 8년간 시가 지원한 안전 검사는 총 2,916건에 이른다.

◆ 2023년 추진실적 요약 ◆



*품목별 제품 예시



<가정용 섬유제품 : 의류 등>



<아동용 섬유제품 : 아동용 모자 등>



<유아용 섬유제품 : 턱반이 등>



<완구>

사진 출처 - © GettyimagesBank

저작권 표기 - (Copyright) © GettyimagesBan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-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(의류·가방 등) ②가족제품(구두·장갑 등) ③접촉성 금속장신구(반지·목걸이 등) ④합성수지제품(슬리퍼·휴대폰케이스 등) ⑤아동용 섬유제품(의류·모자 등) ⑥어린이용 가족제품(가방·신발류 등) ⑦어린이용 장신구(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) ⑧어린이용 가구 ⑨기타어린이제품(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) ⑩유아용 섬유제품(천 기저귀·턱받이 등) ⑪완구 등 총 11종이다. 주로 신체 접촉이 많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·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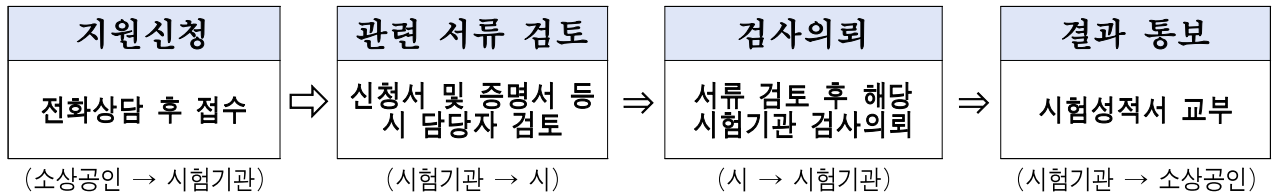
-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품목에 슬리퍼, 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‘합성수지제품’과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‘기타어린이제품’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〈2024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 품목별 지원내역〉

구 분	품목 및 지원율	
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	품 목	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족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합성수지제품(추가)
	지 원 율 (100%)	서울시 5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0%
공적 어린이 제품	품 목	⑤ 아동용 섬유제품(만3세~만13세 이하) ⑥ 어린이용 가족제품(만13세 이하) ⑦ 어린이용 장신구(만13세 이하) ⑧ 어린이용 가구 ⑨ 기타어린이제품(추가)
	지 원 율 (80%)	서울시 3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20%
안 전 확 인 어 린 이 제 품	품 목	⑩유아용 섬유제품(36개월 미만) ⑪ 완구
	지 원 율 (80%)	서울시 80% 지원, 소상공인 20%

※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검사 비용 미지원

- 지원사업 신청은 접수 시작일인 3월 4일(월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, 시와 협약한 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’(☎2102-2500), ‘KATRI시험연구원’(☎3668-3036), ‘FITI시험연구원’(☎3299-8000)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.



- 신청 기간은 상·하반기로 운영하여 하반기 상품 출시 및 계절 상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.
-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“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생활 밀접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2024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

□ 2024년 소상공인 안전검사(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) 비용 지원

○ 지원품목 : 11개

-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합성수지제품
- ⑤ 아동용 섬유제품 ⑥ 어린이용 가죽제품 ⑦ 어린이용 장신구 ⑧ 어린이용 가구
- ⑨ 기타어린이제품 ⑩ 유아용 섬유제품 ⑪ 완구

○ 품목별 지원을

구분 (지원율)	제품	세부품목
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(100%)	① 가정용 섬유제품	의류, 학생복, 한복, 신발류, 가방, 양말, 장갑, 이불 등
	② 가죽제품	의류, 구두, 가방, 침구류, 장갑, 신발류 등
	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	반지, 목걸이, 팔찌, 귀고리, 펜던트, 발찌, 손톱장식품, 피어싱, 배꼽찌, 손목시계, 시계줄, 머리장식품 등
	④ 합성수지제품(추가)	요가매트, 슬리퍼, 욕실화, 짐볼, 휴대폰케이스 등
	지 원 율	서울시 5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0%
공급자 적합성 어린이제품 (80%)	⑤ 아동용 섬유제품 (만3세~만13세 이하)	의류, 스웨터, 재킷, 코트, 다운의류, 커버올스, 점퍼, 모자, 숄, 머플러, 넥타이, 토시, 신발(운동화, 장화류, 슬리퍼) 등
	⑥ 어린이용 가죽제품 (만13세 이하)	의류, 구두, 가방, 침구류, 장갑, 신발류 등
	⑦ 어린이용 장신구 (만13세 이하)	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(섬유, 합성수지, 금속 등)
	⑧ 어린이용 가구	어린이용 가구
	⑨ 기타어린이제품(추가)	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
지 원 율	서울시 30% 지원, 공인시험기관 50% 할인, 소상공인 20%	
안전 확인 어린이제품 (80%)	⑩ 유아용 섬유제품 (36개월 미만)	의류, 신발, 침구류, 신발류, 양말류, 장갑류, 모자류, 가방류, 신생아용품(기저귀카바, 천기저귀, 손수건, 턱받이, 손발싸개) 등
	⑪ 완구	완구
	지 원 율	서울시 80% 지원, 소상공인 20%

소상공인 안전검사(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) 지원 현황

- ▶ 지원개시 : 2016. 5. 23.부터
- ▶ 추진배경 : 소상공인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
- ▶ 대상품목 : 가정용 섬유제품, 가죽제품,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11개 품목(24년)
- ▶ 추진실적 : 2,916건('23년 533건 '22년 462건 '21년 283건 '20년 200건 '19년 193건 '18년 122건 '17년 717건 '16년 406건)
- ▶ 운영절차 : 신청(소상공인) ➡ 접수 및 제품검사(공인시험기관) ➡ 개별통보(시험성적서)